

폴란드의 CO<sup>2</sup> 배출권관련 동향

가. 폴란드의 CO<sup>2</sup> 배출권

□ 2008~12년간 연 2.9억톤 할당

- 폴란드는 2007년 말 2008-12년간 연 2억 8,850만톤의 CO<sup>2</sup> 배출권을 EU집행위에 신청하여 2억 850만톤의 CO<sup>2</sup> 배출권을 할당받은 바, 집행위의 배출권 할당량이 신홍 제조업의 중심지로 부상하고 있는 EU 신규가입국의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집행위를 EU사법재판소(ECJ)에 제소하고 CO<sup>2</sup> 배출권 할당치에 대한 새로운 정부제안서를 마련하였으며, 곧 각의 결정을 거쳐 EU 집행위에 제출 예정임.
- 2007년 12월 EU 집행위의 폴란드에 대한 2008-12간 영역별 연간 배출량 할당치 및 2005년 배출량

<표> 주요 분야별 2008-12년 연간 배출량 할당치

단위: 천 톤

구 분	연간 할당치	( 2005년 배출량 )
발전소	155,000	(118,470)
전력, 난방시설	27,100	(28,800)
시멘트공업	800	(11,500)
철강, 금속공업	7,400	(11,800)
화학공업	4,800	(5,200)

□ 현재 할당량으로는 전력생산 차질 우려

- 특히 96%를 석탄 등 화석연료에 의존하고 있으며, 환경기술 개발이 뒤떨어진 발전분야의 경우, 상기 쿼터로는 현 전력생산수준을 유지할 수 없을 것으로

예상되어, 2008-12년간 ETS(European Union CO<sup>2</sup> Trading System)로부터 배출권을 구입하여야 할 것으로 예상됨. 이에 따라 전력요금의 급격한 상승 가능성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임.

- 동 문제 해결을 위하여 영역 간 배출규모 조정이 추진되고 있으며 전력요금의 상승을 우려하는 경제부는 발전분야로의 배출권 이전에 찬성하는 입장이나, 환경부 및 환경 운동가는 환경기술 선진분야가 환경기술 개발 낙후 분야로 인해 역차별을 받는다고 반대하는 상황
- 또한 폴란드는 발전 등 추가 배출권이 필요한 분야가 폴란드의 2013-18년 쿼터를 전용해서 미리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EU집행위에 제안할 예정

## 나. 일본과 CO<sup>2</sup> 배출권 거래 협의

- 폴란드는 상기 CO<sup>2</sup> 배출권의 부족 현상에도 불구하고, 2008-12년간 폴란드 CO<sup>2</sup> 할당량의 대 일본판매를 추진 중
  - 현재 환경부 관계관이 4월중 개최 예정인 일본과의 CO<sup>2</sup> 배출권 판매협상 준비를 위해 방일 중
- 폴란드는 교토의정서에 의거 2008-2012년간 약 5억톤의 CO<sup>2</sup> 배출권을 보유하고 있는 바, 금번 협상 시 약 5천만톤(현 톤당 4-5만불의 국제가격 고려시 약 2억 5천만불 상당)의 배출권 거래에 대한 협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
  - 일본은 폴란드에 CO<sup>2</sup> 판매금액이 발전소 현대화, 환경에너지 개발 및 에너지 효율성 증대 및 친환경 개발에 투자된다는 보장을 요구하면서 풍력터빈의 대폴란드 수출을 추진하고 있는 반면, 폴란드는 일본기업에 의한 기술이전을 요구하고 있음.

【폴란드주재원 제공】